

가제 ‘한여름’

<등장인물>

-나연

영화의 주인공, 밝고 긍정적이며 리더쉽도 있던 그런 아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현실에 부딪힌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다.

-어린 나연

엄마를 존경,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꾀다. 때문지 않아 한없이 순수하고 밝다

-엄마

영화감독. 딸이 자신과 같은 꿈을 꾀다는 것에 행복해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결국 나연의 결을 떠났다.

S#1 카페, 저녁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꺼내면서 손님을 부르는 나연.

전화벨이 울린다. 하지만 무시하는 나연.

나연 : 21번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손님 : (손님이 핸드폰을 하며 다가온다) 예? 저 아이스로 안시켰어요;;

나연 : 네? 분명 아이스로....

손님 : 아니 하 안 시켰다니까... 됐어요(심통난 듯이)

나연 : 영수즈....

손님 : (무시하고 나간다.)

손님은 매장을 나간다.

나연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는다. 나연은 노트북을 켜서 시나리오를 쓴다.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

주머니에서 공무원 전단지를 꺼낸다.

나연은 전단지를 움켜쥐며 전단지 글씨를 쳐다본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핸드폰을 쳐다보며 버튼을 누를까 말까하는 나연)

도중에 전화는 꺼진다. 나연은 핸드폰을 뒤집어 올려 놓는다.

S#2 길가, 밤

나연은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손을 어깨 끈에 올려두고 터벅터벅 땅바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온다.

길에 잠시 멈춰서는 나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본다.

계속되는 전화 알림음.

(잠시 버튼을 누르려다 말았다가 다시 마침내 버튼을 누르는 나연)

나연은 전화를 받는다.

나연 : (조심스럽게) 여보세요.

집주인 : 어 학생~ 나 집주인인데

나연 : (약간의 당황한 어투,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아 네 안녕하세요.

집주인 : 월세가 지금 4달째 밀렸어. 물론 사정은 알지만

나연 : (고개를 조아리면서) 아 진짜 죄송해요.

집주인 : 사정은 이해하는데 나도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해서. 그래서 그런데 모레까지 짐 좀 빼줘,

나연 : (전화기를 두 손으로 붙잡으며 간절히) 사장님 진짜 너무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될까요? 금방 드릴게요.

집주인: 진짜 미안해. 꼭 모레까지 부탁할게

전화를 끊고 항숨을 쉬며 터덜터덜 걷는다.

잠시 멈춰서서 가방에서 통장을 꺼낸다.

통장을 열어본다.

뒷 장을 돌아보며 잔고를 살핀다.

하지만 잔고는 거의 0원에 가깝다.

(더 생각이 많아진 나연)

땅바닥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걸어간다.

S#3 집, 밤

나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집 안에 불이 딱 켜진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에 혼자 사는 나연)

신발장에는 나연의 신발 하나만이 놓여 있다.
화장실에 있는 칫솔도 하나뿐이다.
나연의 방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고 그 앞에 흰색 리본이 놓여 있다.

나연은 캐리어에 옷을 넣는다.

나연 : (옷을 캐리어에 넣으면서 혼잣말로 작게) 아 어디로 가지 진짜

나연은 책상위에 엄마의 사진을 가져온다.
캐리어 앞에서 사진을 잡고 사진을 쳐다본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나연은 사진 뒤편에서 열쇠를 꺼낸다.

나연은 영화 책을 손에 들고 캐리어 앞으로 오면서 책을 뺀히 쳐다본다.
책의 앞뒤, 좌우를 쳐다본다.
(잠시 다른 곳을 응시하는 나연)

책장에 있는 공부원 책을 바라보는 나연.

손에 있는 영화 책을 번갈아서 본다.

(결심하듯) 책장에 있는 공무원 책을 꺼낸다.

캐리어의 문이 닫힌다.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향하는 나연.
(문밖으로 나가는 나연의 뒷 모습 / 하체, 발에 맞춰서 촬영)

S#4 엄마의 사무실, 밤

나연은 엄마의 사무실에 도착한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발을 끌며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가는 나연.
천천히 문 손잡이를 잡지만 다시 손을 내려 놓는다.

숨을 고르면서 무언가 다짐을 한 나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낸다.
손위에 있는 열쇠를 한번 쳐다본다,
열쇠를 돌리니 문이 열린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메라, 시나리오, 사진 등으로 방안이 가득 차있다

곧장 발을 떼지 않고 잠시 머뭇거린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천천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들어온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시선이 이동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제일 왼쪽 귀퉁이에 캐리어를 두고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사무실 안을 둘러보다 서랍 쪽으로 발을 끌며 가서 제일 안쪽 서랍을 살짝 열어본다.
밑에 있는 서랍을 연다.
(서랍 안에 있는 담요)
서랍에서 담요를 꺼낸다.
엄마의 담요를 쳐다본다.

나연 : (약간의 미소와 씩씩한 복잡 미묘한 감정, 담요를 꼭 쥐면서) 와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쓰던 건데

한쪽에 쪼그려 앉는다.
머리를 숙이고 엄마의 담요를 덮고 덮드려서 쪽잠을 잔다.

S#5 엄마의 사무실, 아침

나연은 고개를 들며 잠에서 깬다.
멍하니 그대로 앉아 있다.

옆에 있는 자신의 짐을 쳐다보고 가방을 열어 짐을 정리하려 한다. (캐리어 앞에서 책장을 바라봄)

(짐을 정리하려고 보니 꼭 차있는 책장들)
엄마의 사진들이 책장에 있다.

천천히 일어나며 책장으로 향하는 나연.
엄마가 일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사진을 든다.

나연: (입에 미소를 띄우며) 엄마가 이때 진짜 멋있었네 (입은 웃고 있지만 어딘가 씩씩해 보인다)

엄마의 책상도 쓱 훑어본다,

나연: (책상 앞에 머물며 책상에 손을 올리며) 다 엄마가 쓰던 거네.

천천히 책꽂이를 둘러보는 나연
책꽂이에 있는 물건들을 만진다.

(무언가 다짐을 한 듯해 보이는 나연) 딱 책장 한쪽 앞에 선다.

책장에 있는 영화 관련 서적들을 빼기 시작한다.

두 손으로 잡은 서적들을 잠시 쳐다본다.

하지만 굳게 다짐한 듯 커다란 상자 안에 넣어버린다.

상자를 챙기는 나연

문을 열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 사무실을 쳐다보고 나간다.

(문을 열고 있는 상태로 뒤돌아서 사무실을 바라봄)

S#6 쓰레기장, 낮

상자를 들고 잠시 가만히 서있다.

그러고 쌓여있는 상자들 위에 상자를 내려놓는다.

가만히 상자를 쳐다본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나연

S#7 엄마의 사무실, 밤

나연은 세수를 하고 얼굴에 있는 물기를 수건으로 닦으며 화장실에서 나온다.

수건을 어깨에 걸고 모니터 앞에 앉는다.

검색창에 공무원 시험 날짜를 검색한다.

검색을 누르고 모니터를 빤히 쳐다본다. (걱정이 있는 듯 한숨을 내쉬는 나연)

(무언가 다짐한 듯)

공무원 원서 접수 창에 들어간다.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려고 한다. (막상 클릭을 못하고 손을 움추린다.)

(마우스를 왼 손 C.U.)

결국 클릭한다.

배경화면에 있는 시나리오 파일을 삭제한다.

(복잡한 마음이지만 에라 모르겠다라는 느낌)

S#8 엄마의 사무실, 아침

(방안에는 카메라, 시나리오, 책 등이 정리되어 없어짐)

나연은 쪼그려 앉아 멍하니 빵과 우유를 먹는다.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다가 세워진 캐리어를 발견한다.

나연 : (캐리어를 바라보며) 아 이것도 치워야 하는데

캐리어를 책장 쪽으로 가지고 간다.

캐리어를 놓으려고 하는 곳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다.

나연: (상자를 바라보며) 저게 뭐지

책장 위에 있는 의문의 상자를 발견하고 꺼낸다.

상자를 보며 가우뚱한다.

조심스러워하며 의문의 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는 시나리오와 테이프가 덩그러니 담겨 있다.

테이프와 시나리오를 들고 살펴본다,

(이게 뭐지 하는 느낌)

책상에 앉아 테이프를 노트북에 재생시킨다.

영상에는 어린 시절 나연의 모습이 나온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고 웃는 나연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된다.

엄마의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 나연의 모습이 나온다.

(FLASH BACK)

엄마의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 어린 나연

(엄마가 나연을 찍어주는 영상)

엄마 : 나연아 여기 봐바

엄마 : (웃으면서) 그게 그렇게 재밌어?

나연 : 응

나연 :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 (나연을 귀여워하는) 이리 쥐바

엄마와 나연이 나란히 엮드려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엄마와 나연 서로 장난치며 행복해 보이는 모습.

셀카모드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엄마가 나연에게 질문한다.

엄마 : 우리 나연이는 커서 뭐할 거야?

나연 : 엄마

엄마 : 어?

나연 : 엄마처럼 영화 만들거야

엄마 : (정말 행복해하며) 진짜?

나연 : 응!

엄마 : (너무 좋아하며) 하 누구 딸이지? 나연 : (엄마에게 안기면서) 엄마 딸!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엄마와 나연

(Present)

영상은 끝난다.

영상이 다 끝나 검은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나연은 계속 응시하고 있다.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고 있던 나연은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서 상자 안에 남아 있는 시나리오를 꺼낸다.

시나리오 첫장에는 '제목'이 써있다.

(제목을 곰곰이 쳐다보는 나연)

천천히 첫장을 넘긴다.

시나리오를 천천히 읽어가는 나연

마지막 장을 넘겨서 읽는다.

하지만 비어있는 마지막 신.

잘못되었다는 듯이 앞장과 뒷장을 반복적으로 넘겨보던 나연은 마지막 썬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나연)

시나리오를 덮는다
(검은화면 덮는 동시에)

S#9 엄마의 사무실, 오후

카메라가 다시 놓여 있는 사무실

시나리오, 책도 다시 위치해있다
나연의 짐 또한 자리하고 있다.
한쪽 벽에는 엄마와 나연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하다.
(밝고 따뜻한 느낌의 엄마와 나연이 함께 스며든 사무실)

나연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는다.

나연은 전화를 걸며 의자에서 일어난다.
나연 : 대표님 메일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 완성됐어요!

사무실 컴퓨터엔 메일이 전송완료 되었다고 떠있다.
(제목은 단편영화 제목으로)

나연은 창가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신다.

나연이 일어난 다리에는 시나리오가 있다.
시나리오의 비어있던 마지막 씬의 마침표가 찍혀있다.